

조사보고서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2025. 12.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목 차 ||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대상 기간	1
3. 조사실시 기간	1
4. 조사대상	1
5. 조사방법	1
6. 조사항목	1
7. 집계방법	1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1
II.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2
1. 종합 경기전망	2
2. 응답업체 분포	3
3. 항목별 경기전망	4
4. 업종별 경기전망	4
5. 규모별 경기전망	5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5
7. 지역별 경기전망	5
8. 올해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 목표 달성 수준	6
9. 영업이익 부담 요인	7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 2025년 4/4분기(10, 11, 12월) - 실적기간
- 2026년 1/4분기(1, 2, 3월) - 전망기간

3. 조사실시 기간

- 2025년 12월 1일 ~ 2025년 12월 12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5개 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 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거 126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함.

6. 조사항목

- 종합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
- 기타 경제상황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자도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인 8개 업종), 매출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김제)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수} - \text{악화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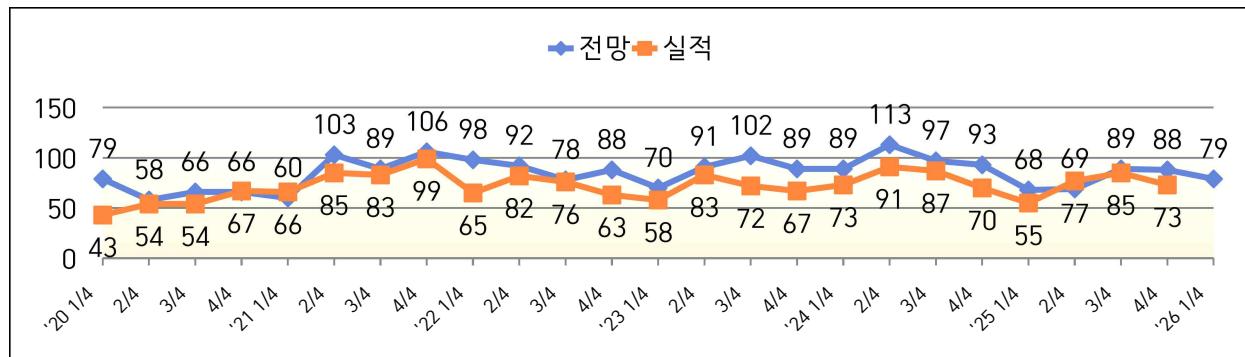
Ⅱ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종합 경기전망

2026년 1분기 전북 제조업체 BSI ‘79’, 경기 부진 장기화 전망

-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2026년 1분기에도 기업경기가 뚜렷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보다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조사됨.
-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26개사로부터 회수된 조사표를 토대로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9’로 집계되어 기준치인 100을 하회함. 이는 2024년 2/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같은 전망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과 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자금 부담, 고환율 영향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내수 회복 지연 등 구조적 부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특히 환율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부담 확대가 기업 경영 전반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응답 기업의 72.5%가 올해 설정한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2026년에도 보수적·안정 중심의 경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장기화되는 경기 부진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금 확대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수출 금융 지원 강화 등 기업 경영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단위 : B.S.I, 전분기대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전망치	60	103	89	106	98	92	78	88	70	91	102	89	89	113	97	93	68	69	89	88	79
실적치	66	85	83	99	65	82	76	63	58	83	72	67	73	91	87	70	55	77	85	73	

2.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2026년 1/4분기 경기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1.3%(5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9.8%(25개사)에 그친 반면,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8.9%(49개사)로 나타남.
-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경기 반등보다 현 수준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함을 보여주며, 기업들은 2026년 1/4분기에도 경영 여건 변화를 신중히 관망하며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 분	2025년 4/4분기 전망	2026년 1/4분기 전망
호 전	25.0%(30개사)	19.8%(25개사)
비 슷	35.0%(42개사)	38.9%(49개사)
악 화	40.0%(48개사)	41.3%(52개사)
계	100.0%(120개사)	100.0%(126개사)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항목별 경기전망은 매출액(80), 영업이익(78), 설비투자(89), 자금사정(71) 등 모든 항목의 전망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1/4분기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2026년 1/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사정
BSI	80 (75)	78 (71)	89 (95)	71 (62)

* ()는 지난 4/4분기 BSI 실적 수치

4. 업종별 경기전망

- 모든 업종의 경기 전망(BSI)이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며, 전반적인 경기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과 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자금 부담, 고환율 영향으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내수 회복 지연 등 대내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경영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6년 1/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비이온성스풀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 타
BSI	87 (81)	50 (67)	91 (57)	80 (90)	74 (96)	50 (67)	93 (47)	60 (60)

* ()는 지난 4/4분기 BSI 실적 수치

- 자동차부품(93) 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부과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부담이 지속될 전망임.
- 비금속(80) 업종은 건설경기 둔화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계절적 요인이 더 해지면서, 2026년 1/4분기에도 경기 여건은 다소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섬유의복(50) 및 전기전자(50) 업종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섬유의복 업종은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 심화와 소비 심리 위축, 재고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업황 개선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전자 업종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전반적인 시장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2026년 1/4분기에도 경기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5. 규모별 경기전망

- 대·중견기업(92)과 중소기업(75) 모두 기업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026년 1/4분기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대·중견기업에 비해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건비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누적되면서 경기둔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26년 1/4분기 규모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BSI	92 (92)	75 (66)

※ ()는 지난 4/4분기 BSI 실적 수치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수출기업(100)은 전 분기 대비 지수가 개선되며 기준치에 도달했으나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내수기업(76)은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도 지속되면서 기준치를 하회한 가운데 내수 회복에 대한 전망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음.

【 2026년 1/4분기 매출유형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BSI	100 (94)	76 (70)

※ ()는 지난 4/4분기 BSI 실적 수치

7. 지역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을 보면, 전주(78), 익산(85), 군산(86), 전북서남(74), 김제(80) 등 전 지역의 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하며, 지역 간 차이보다는 전북 전반의 산업·소비 여건이 아직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가운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 1/4분기 지역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실적)

구 분	전 주	의 산	군 산	전북서남	김제
BSI	78 (80)	85 (75)	86 (71)	74 (45)	80 (80)

* ()는 지난 4/4분기 BSI 실적 수치

8. 올해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 목표 달성 수준

- 매출실적 목표 달성을 여부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2.5%가 2025년 연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매출실적 ‘10% 이상 미달’ 기업이 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0% 이내 미달’ 기업도 35.4%에 달해 목표 대비 실적 부진이 전반적으로 폭넓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반면, 연간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21.9%에 그쳤고, 초과 달성 기업은 5.6%에 불과해 전반적인 매출 흐름은 성장보다는 정체 국면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올해 매출실적 목표 대비 달성 수준 】

(단위 : %)

구 분	10% 이상 미 달	10% 이내 미 달	연간 목표 달 성	10% 이내 초과 달성	10% 이상 초과 달성	총계
비 율	37.1	35.4	21.9	4.8	0.8	100.0

-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여부를 보면, 응답 기업의 72.5%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됨. 이 가운데 ‘10% 이상 미달’이 35.0%, ‘10% 이내 미달’이 37.5%로 나타나 목표 대비 수익성 부진이 전반적으로 확인됨. 반면, 연간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18.3%에 그쳤고, 초과 달성 기업도 9.1%에 불과해 성과 개선 폭은 제한적인 모습임. 이는 매출 성장 둔화와 원자재·에너지 비용,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함.

【 올해 영업이익 목표 대비 달성 수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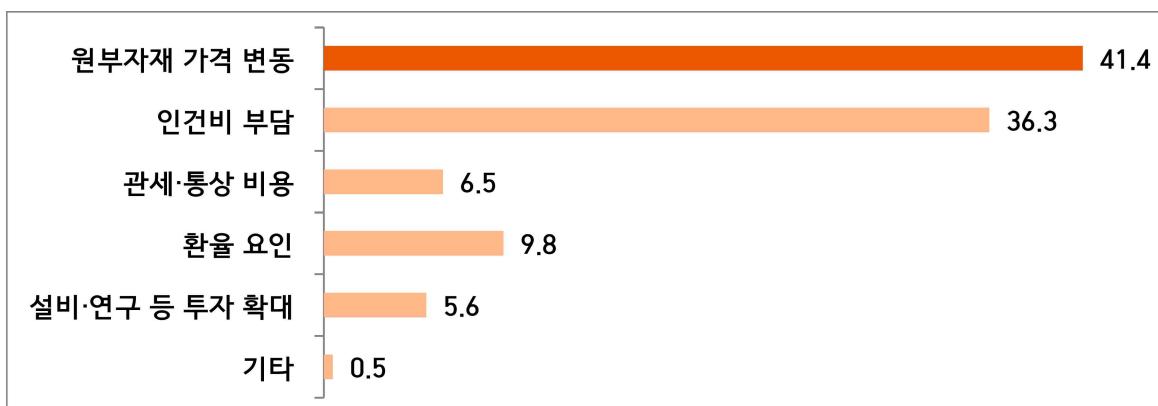
구 분	10% 이상 미 달	10% 이내 미 달	연간 목표 달 성	10% 이내 초과 달성	10% 이상 초과 달성	총계
비 율	35.0	37.5	18.3	5.8	3.3	100.0

9. 영업이익 부담 요인

- 올해 영업이익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요인으로는 ‘원·부자재 가격 변동’이 4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인건비 부담’(36.3%), ‘환율 요인’(9.8%), ‘관세 및 통상 비용’(6.5%), ‘설비·연구 등 투자 확대’(5.6%) 순으로 조사됨.
-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되며 생산비와 영업비용 전반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
- 아울러 해외 수요 둔화와 수출 여건 악화, 수입물가 상승 등이 겹치며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과 경영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 부담 요인 】

(단위 : %)



- 업종별 영업이익 부담 요인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원·부자재 가격 변동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지목됨.

【 업종별 영업이익 부담 요인】

(단위 : %)

구 분	원부자재 가격 변동	인건비 부담	관세·통상 비용	환율 요인	설비·연구 등 투자 확대	기 타
바이오농식품	41.5	32.1	7.5	13.2	3.8	1.9
섬유의복	27.3	45.5	18.2	-	9.1	-
화학	50.0	37.5	5.0	2.5	5.0	-
비금속	42.1	31.6	10.5	15.8	-	-
금속기계	33.3	33.3	10.3	12.8	10.3	-
전기전자	75.0	25.0	-	-	-	-
자동차부품	34.6	38.5	-	15.4	11.5	-
기타	42.1	52.6	-	5.3	-	-